

[특별기고Ⅱ] 당뇨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길...

현재 국내 당뇨병환자가 인구의 8%이고, 매년 27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나오고 있다. 당뇨병 치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돈이 전체 의료비의 20%를 차지한다.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10명 중 1명이 당뇨병환자가 된다는 분석까지 가능하다.

한국아스트라제네카 | 의학부 최 현 아 이사

한국인은 선천적으로 핏속의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생산능력이 낮다. 지난 30년간 경제성장으로 기름진 고칼로리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. 그 중 혈액 내의 당농도가 높아지는 병인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문제다. 자칫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당뇨병은 완치할 수 있는 병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병이다.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올바른 식이 요법, 규칙적인 운동,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당뇨병환자도 일반인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.

그러면 당뇨병환자가 당뇨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? 오랜 기간 당뇨병환자를 위해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개발해 온 제약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이 있다면, 환자들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로 늘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.

물론 병이라는 것이 환자의 의지와 마음가짐으로만 고칠 수 있다면 좋으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.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수많은 연구와 굵은 땀방울로 당뇨병 극복에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. 지금까지도 그렇고 실제 앞으로도 그 노력들이 하나 둘씩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. 아스트라제네카에서 2008년 하반기에 발표하게 될 당뇨병성 망막증 예방 치료를 위한 국제적 대규모 임상연구도 그 값진 결실 중 하나가 될 것이다.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당뇨병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당뇨 합병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.

이러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료제 개발 노력과 함께 환자 본인의 긍정적인 사고와 투병에 대한 의지가 합해진다면 악명 높은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. 